

# '93년 국제 에너지 정세 전망

이 자료는 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동경에서 열린 에너지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신질서를 모색하는 국제에너지 정세 전망」의 요지이다.  
〈편집자註〉

① 미소에 의한 냉전구조의 붕괴를 계기로 현재 세계는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질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시장도 신질서를 구축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움직임으로 ①냉전종식에 의해 에너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 ②美·日·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3대 지역경제권 구상과 병행해서 에너지 공동시장화를 목표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 ③지구환경문제를 계기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남북문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 ④걸프전 이후 中東지역에 있어 美국의 영향력이 한층 높아져 「뉴 팩스아메리카」라 불리는 상황이 있다는 점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앞으로 국제 에너지시장의 신질서가 형성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90년대의 기본적인 방향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에너지 데탕트

70년대 이후 에너지분야에서 대립적인 색채가 강했던 OPEC對IEA, 산유국 對 메이저, 선진국 對 개도국 등의 관계가 금후에는 대결국면을 벗어나 현실주의에 기초한 상호의존관계의 중시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2) 자유화와 규제완화

산유국에서는 자국자원의 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자도입책이 舊소련이나 中國 등에서는 에너지가격의 시장화가, 일본·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국에서는 규제완화에 의한 에너지 시장의 경쟁촉진책 등이 취해지게 된다.

## (3) 에너지 高品質化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청정 연료에의 지향이 한층 높아지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냉전 종결 후의 국제 에너지정세는 시장메커니즘의 중시와 환경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화 지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후 세계적으로 中東석유에의 의존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슬람 원리주의의 대두, 에너지·환경세의 도입을 둘러싼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립, 러시아의 석유동향 및 구소련·동구의 위험한 원자력 발전 문제 등 국제 석유·에너지 정세를 불안정화시키는 혼다한 요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② 지난해 10月 24日 부시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종합국가에너지정책법」이 성립했으나, 논란을 부른 ANWR의 개발조항과 CAFE(기업별 평균 연비 효

율) 기준의 인상조항 모두가 법안에서 제외됨으로써 석유수입의 억제 효과에 있어서는 별로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 美國 경제의 재건을 최대의 선거공약으로 하여 선출된 클린턴 차기 대통령은 수입석유에의 의존도 감축과 환경문제의 중시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 강화, 천연가스 자원의 최대한 활용,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확대, OCS 및 ANWR의 개방 및 과도한 원자력발전에의 의존 반대 등의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걸프전이 너무나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 그 후 국제석유시장도 안정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클린턴 신정권은 국내에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CAFE 기준의 인상이나 환경세의 도입, 휘발유 중세 등에는 당분간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하여 석유수입이 다시 대폭 증가로 전환하게 되면, CAFE기준의 인상이나 휘발유세의 소폭 인상 등의 구제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절감·투자의 촉진, 천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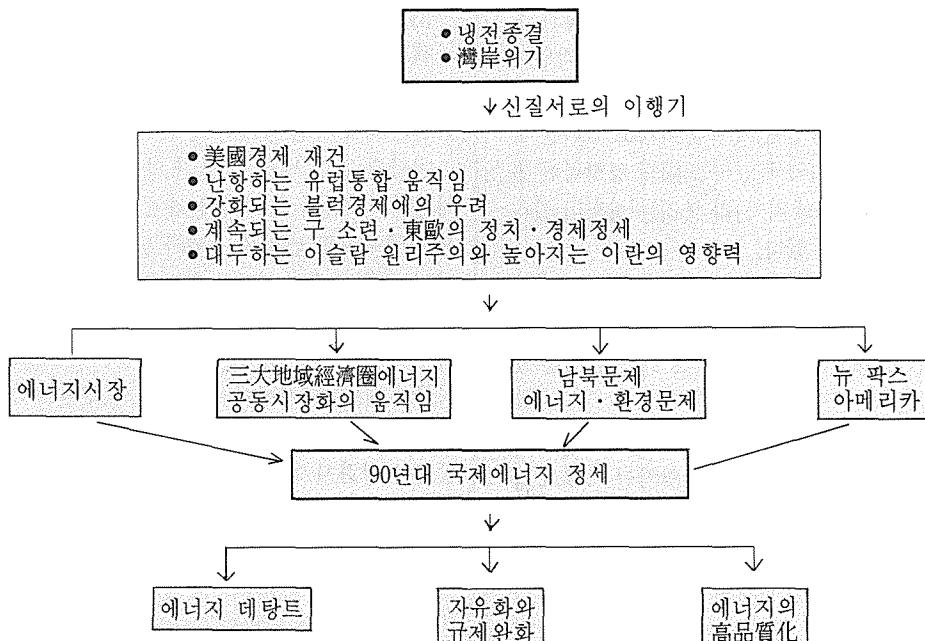
스나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 면에서 우대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③ '93년 국제 석유수급을 전망하면, 세계 경제의 혼미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우선 세계의 석유수요는 전년비로 0.7% 정도의 낮은 증가에 그친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는 지속적인 증가가 기대되지만, 선진국에서는 미증, 舊소련에서는 계속 10%를 상향하는 대폭적인 감소가 지속될 것이 예상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공급면에서는 북해나 非OPEC 개도국에서 증산은 있겠지만 舊소련 및 美國에서의 감산이 크기 때문에 非OPEC 전체 산유량은 전년에 비해 70만 b/d 정도 감소한다. 그 결과, OPEC 원유 수요는 92년의 2,440만 b/d에서 93년에는 2,560만 b/d로 증가할 것으로豫想된다.

이처럼 OPEC 석유에 대한 착실한 수요 증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쿠웨이트의 산유량 회복, 사우디 와 이란의 생산능력 확대 경쟁, 이라크의 수출재개 가능성 등 OPEC제국에 의한 증산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표-1〉

90년대의 국제에너지 정세를 보는 관점



이라크에 대해서는 사담 후세인 체제가 지속되는 한 유엔안보리에서 결정된 50万b/d 전후의 부분적인 수출제개는 있을 수 있으나, 본격적인 수출제개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93년 원유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사우디와 이란의 석유정책동향이다.

'91년 걸프전 이후 국교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추진해온 양국은 석유정책면에서도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왔으나, 최근에는 대립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이란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력의 강화, 이란의 *Abu Musa*섬 점령,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에의 지원, 구 소련 지역의 중앙아시아 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 걸프지역에서의 이란의 대두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큰 위협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담 후세인이 지속되는 한, 양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어 석유정책 면에서도 결정적인 대립에 이를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양국 모두 석유수입의 유지·확보가 지상명령으로 가격전쟁을 재차 야기시킬 경제적인 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에서 '93년의 원유가격은 일시적인 급등·급락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바이원유의 *Spot*가격으로 \$16~20b/d 범위에서 변동하고 연평균 18\$/B 정도가 될 것으로豫想된다.

④ '90년대도 국제석유정세를 전망하면 석유수요는 연간 1.4% 증가가 예상되는데, 非OPEC 지역의 생산이 정체하기 때문에 對OPEC 수요는 '92년의 2,440万b/d에서 '95년에는 2,870万b/d, 2000년에는 3,140万b/d로 증가경향을 계속한다. 또한, 금후 대폭적인 증산여력이 기대되는 것은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의 걸프산유국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지구환경문제에의 대응이나 재원확보 등을 이유로 에너지·환경세 도입이나 석유증세 움직임이 증대되고 있는데, 걸프산유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유과세의 강화는 산유국의 생산능력 확대 투자에의 의욕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석유시장 안정화를 손상시킨다는 것이 산유국이 주장이다.

소비국은 석유시장의 안정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산유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구환경을 지키면서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려면 석유·에너지 분야에 있어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충분한 투자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후 원유가격은 인플레이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상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두바이 원유의 스파트가격으로는 '92년 17.40 \$/B에서 '95년에는 22\$/B 2000년에는 28\$/B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油開公. 주간석유뉴스〉

〈표-2〉

三大경제권의 경제·에너지 비교(1991년)

	E C	N A F T A	아 시 아		
			日 本	A S E A N + N I E S	
인 구(a)	34,165 万人	36,264 万人	51,507 万人	12,354 万人	39,153 万人
GDP (GNP) (b)	55,019 億\$	62,817 億\$	37,650 億\$	29,429 億\$	8,221 億\$
1인당 GDP(b/a)	16,104 \$/人	17,322 \$/人	7,310 \$/人	23,821 \$/人	2,100 \$/人
에너지 소비(c)	1,206 MTOE	2,280 MTOE	740 MTOE	438 MTOE	302 MTOE
1인당 소비(c/a)	3.53TOE/人	6.29TOE/人	1.44TOE/人	3.55TOE/人	0.77TOE/人
에너지 생산(d)	608 MTOE	2,076 MTOE	321 MTOE	71 MTOE	250 MTOE
에너지 자급율(d/c)	50.4%	91.1%	43.4%	16.2%	82.8%
석 유 수 요(e)	550 MTOE	922 MTOE	447 MTOE	247 MTOE	200 MTOE
석 유 생 산(f)	116 MTOE	668 MTOE	123 MTOE	1 MTOE	122 MTOE
석유자급율(f/e)	21.1%	72.5%	27.5%	0.3%	61.0%
中東석유수입(g)	174 MTOE	104 MTOE	294 MTOE	172 MTOE	122 MTOE
中東의존도(g/e)	31.6%	11.3%	65.8%	69.6%	61.0%

〈자료〉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

〈표-3〉

국가에너지 政策法 일지

		事項
1989.	7	부시대통령, 국가에너지 戰略(NES)의 수립을 지시
1991.	2/20	정부, NES를 발표
1992.	2/19	上院본회의. 법안(S-2166)을 승인
	5/27	上院본회의. 법안(H.R-776)을 승인
	7/30	上院본회의. 하원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제관련조항이 부가된 법안 승인
	9/30	양원협의회에서 상·하원법안의 일원화 작업을 종료
	10/5	하원본회의. 최종법안 승인
	10/8	상원본회의. 최종법안 승인
	10/24	대통령. 법안에 서명

〈표-4〉

美國 에너지정책의 계보

1969	·「第1次 에너지교서」(1971년 6월)	← 石油輸入 증대
第1次 석유위기	·「第2次 에너지교서」(1973년 4월) ·「에너지 자립계획」(1974년 6월) ◎에너지 정책·절약법(1975년 12월)	← 石油輸入 자유화
1977 第2次 석유위기	·「國家에너지 계획」(1977년 4월) ◎에너지 5法 제정(1978년 10월) ◎에너지 안정 확보법(1980년 6월)	← 輸入石油 삭감
1981 원유가격 급락	·市場 매카니즘 중시의 규제 완화 촉진 ——原油價格規制撤廢, 에너지省의 縮小 ——合成燃料公社의 폐지, 천연가스 가격규제 완화	←
1993	◎綜合國家에너지政策法(1992년 10월) 「新政權下의 에너지정책」의 책정	← 안전보장 경제성장 환경보호

〈표-5〉

에너지정책법(EPA)의 개요(괄호 내는 보류된 주요 항목)

(1) 에너지 효율
①發電, 送電에 있어 에너지효율 개선 및 DSM체택에 대한 전력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②건축물, 전기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 설정 (CAFE 基準引上)
(2) 대체연료
①연방, 주정부 및 대체연료공급자에 대한 대체연료차의 단계적 도입 의무화
②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대체연료차도입 프로그램의 책정
③전기자동차구입자, 충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재생가능에너지
①태양열·지열에너지에 관한 사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구화
②風力, 바이오매스에 의한 상업규모의 발전에 대한 1.5센트/kwh의 세액공제
③재생가능 에너지기술, 응용을 개발하는 정부, 민간의 조인트 벤처의 공인
(4) 電力의 규제완화
①공의사업지주회사법(PUHCA)을 개정하여 독립계발전사업자(IPP)를 同法의 규정에서 면제
②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FERC)의 탁송명령(電力會社에 第三者에 대한 송전서비스를 명함)

## (5) 石油

- ①代替 미니엄 稅(AMT) (독립계 石油·天然가스 생산자에 대한 세공제의 제한) 개정
- ②戰略國家備蓄(SPR) 목표비축량 상향조정 (7.5→10億배럴)
- (北極圈野生植動物保護區 (ANWR) 개방)
- (대륙붕 (OCS)의 모라토리움 強化-대상지역 확대, 기한의 연장)

## (6) 天然ガス

- ①(輸入天然ガス에 대한 부당차별 (가격) 금지)
- (天然ガス 生産에 대한 주정부 조정권한의 철폐)
- (天然ガ스 파이프라인 건설허·인가수속 간소화)

## (7) 石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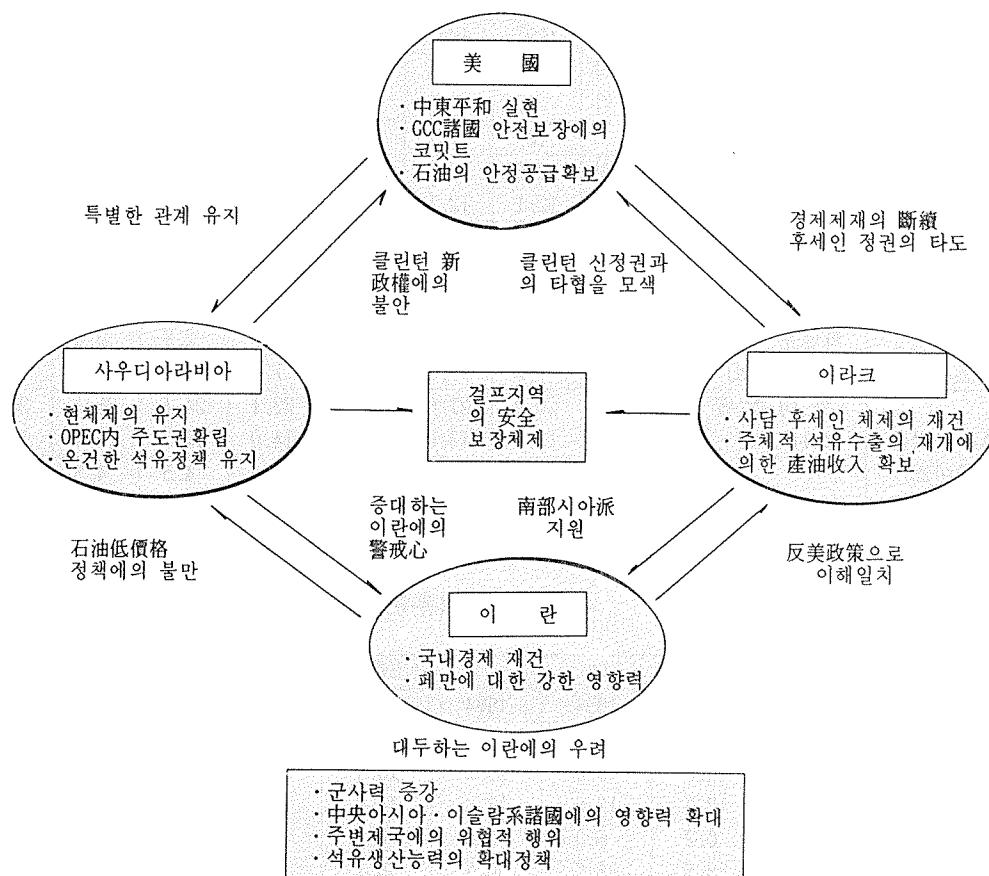
- ①石炭 및 클린 석탄 테크놀로지의 수출촉진
- ②석탄연료의 부산물이용 및 석탄기술 정보교환 센터 설립에 관한 정보

## (8) 原子力

- ①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허인가수속(건설, 운전)
- ②에너지省(DOE) 우라늄 농축사업을 인수하는 공사 설립
- ③네 바다주에 있어 高수준 방사성 폐기물처치시설, 환경기준설정에 즈음하여 환경보호국(EPA)은 국립과학아카데미(NAS)의 가이드라인 考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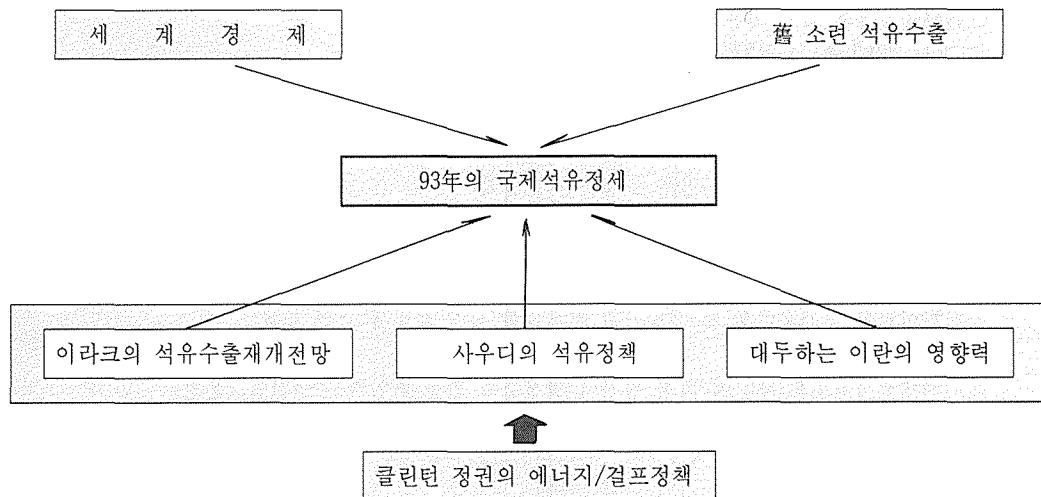
〈표-6〉

美國 대통령선거 후 걸프지역의 정치역학



〈표-7〉

93년의 국제석유정책을 결정할 主要因



〈표-8〉

美國의 휘발유 소비전망(2가지 시나리오)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보유 대수 (백만대)	승용차	144	146	148	151	154	157	161
	軽트럭	43	45	46	47	48	49	50
	<b>計</b>	187	191	194	198	203	207	211
평균주행거리/年 (千마일)	승용차	10.6	10.5	10.6	10.7	10.8	10.9	11.0
	軽트럭	12.1	12.1	12.2	12.3	12.5	12.6	12.7
휘발유稅 引上케이스 (5센트/gal)	平均燃費 (mile/gal)	승용차	20.9	21.6	22.1	22.6	23.1	23.6
		軽트럭	12.9	13.0	13.3	13.6	13.9	14.4
	<b>計</b>	4.5	4.6	4.6	4.7	4.7	4.8	4.8
C A F E 기준 強化케이스 (2003년까지 40MPG)	휘발유 소비량 (백만 b/d)	승용차	2.7	2.7	2.8	2.8	2.8	2.8
		軽트럭	7.2	7.3	7.4	7.5	7.5	7.6
	<b>計</b>	4.5	4.6	4.6	4.6	4.5	4.5	4.4
	平均燃費 (mile/gal)	승용차	12.9	13.0	13.3	14.0	14.7	15.4
		軽트럭	2.7	2.7	2.8	2.7	2.7	2.6
	<b>計</b>	7.2	7.3	7.4	7.3	7.2	7.1	7.0

〈표-9〉

90년대 세계 석유수요 전망

(단위 : 백만b/d)

	실적	예						연평균 증가율(%)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OECD 諸國								
북미	18.6	18.8	19.0	19.2	19.4	19.8	1.1	0.4
구주	13.4	13.5	13.6	13.8	14.0	14.4	1.1	0.6
태평양	6.1	6.2	6.3	6.5	6.7	7.1	2.4	1.2
소계	38.1	38.5	38.9	39.5	40.1	41.3	1.3	0.6

非OECD 諸國								
소련	8.3	7.2	6.4	6.0	5.8	6.0	-8.6	0.7
동구	1.2	1.1	1.1	1.2	1.2	1.5	0.0	4.6
중국	2.5	2.6	2.7	2.9	3.0	3.8	4.7	4.8
아시아	5.8	6.3	6.7	7.1	7.5	9.0	6.6	3.7
기타	10.9	11.3	11.7	12.1	12.5	13.7	3.5	1.9
소계	28.6	28.5	28.6	29.3	30.0	34.0	1.2	2.5

〈표-10〉

90년대 세계 석유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 백만b/d)

		실적	전망					연평균 증가율(%)	
			1992	1993	1994	1995	2000	91~95년	95~2000年
수요계		66.7	67.0	67.5	68.8	70.1	75.3	3.4	5.2
공급	非OPEC								
	OECD	16.3	16.5	16.6	16.6	16.5	16.0	0.2	-0.5
	소련	10.4	9.0	8.0	7.4	7.0	8.0	-3.4	1.0
	중국	2.8	2.8	2.8	2.9	2.9	3.1	0.1	0.2
	기타	10.6	10.8	11.0	11.2	11.4	12.9	0.8	1.5
	프로세싱 개인	1.4	1.4	1.4	1.4	1.4	1.5	0.0	0.1
	소계	41.4	40.6	39.8	39.5	39.2	41.5	-2.2	2.3
	OPEC								
	원유	23.3	24.4	25.6	27.2	28.7	31.4	5.4	2.7
	NGL	2.1	2.1	2.2	2.2	2.3	2.5	0.2	0.2
	소계	25.4	26.5	27.8	29.4	31.0	33.9	5.6	2.9
공급계		66.8	67.1	67.6	68.9	70.2	75.4	3.4	5.2
원유가격(Dubai)		16.6	17.4	18	20	22	28	-	-

## ■ 신간 ■

경제발전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기초에너지인 석유 석유의 생성에서부터 수송·정제·유통·용도·환경보호등 석유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엮은 본격적인 석유만화.

# 만화 석유이야기

대한석유협회 홍보실